



Two shades of white

아리타 도자기 가마에서 제작한 백자 베이스에 흰색 린넨 셰이드를 조합한 조명입니다. 직선적으로 깎아 만든 십이각 기둥과 부드러운 원통형 셰이드가 대비를 이루며 조각 같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백자와 린넨은 모두 흰색이지만, 질감의 차이로 인해 빛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백자는 투명감이 감도는 단단하고 차가운 표면을 지닌 반면, 잔잔한 슬림이 있는 린넨은 은은한 음영과 따스한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두 소재 모두 '흰색'이라는 점이 이 조명의 본질입니다. 불을 켜면 두 소재의 질감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며, 백자의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와 린넨이 지닌 소박하고 부드러운 감성이 어우러져 공간에 온화한 빛을 채웁니다.

Two shades of white



LP-023 Light
Ø325 × H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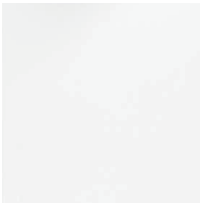


LP-024 Light
Ø215 × H600

TIME & STYLE

H (height)
φ (diameter)

Dimensions Unit: mm



자기
Unglazed



리넨
White